

잡아함 14 미경 2

날짜: 10월 26th, 2023

출처: <http://www.dhamma.kr/wp/?p=17532>

14. 미경(味經) ②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수급고독원에 계셨다.

그때 세존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옛날 색에 맛들임[色味]에 대해서 궁구하고 수행하였다. 그래서 만일 색에 맛들임을 그대로 따라 깨닫게 되면 지혜로써 색에 맛들임을 사실 그대로 보았다. 이와 같이 수(受) · 상(想) · 행(行) · 식(識)에 맛들임에 대해서 궁구하고 수행하였다. 그래서, 수 · 상 · 행에 맛들임도 마찬가지이며, 만일 식에 맛들임[識味]을 그대로 따라 깨닫게 되면 지혜로써 식에 맛들임을 사실 그대로 보았다.

비구들아, 또 나는 색의 재앙[色患]에 대해서 궁구하고 수행하였다. 그래서 만일 색의 재앙을 그대로 따라 깨닫게 되면 지혜로써 색의 재앙을 사실 그대로 보았느니라. 수 · 상 · 행의 재앙도 마찬가지이며, 식의 재앙에 대해서 궁구하고 수행하였다. 그래서 만일 식의 재앙을 그대로 따라 깨닫게 되면 지혜로써 식의 재앙을 사실 그대로 보았다.

비구들아, 또 나는 색에서 벗어남[色離]에 대해서 궁구하고

수행하였다. 그래서 만일 색에서 벗어남을 그대로 따라 깨닫게 되면 지혜로써 색에서 벗어남을 사실 그대로 보았느니라. 이와 같이 수·상·행·식에서 벗어남에 대해서 궁구하고 수행하였다. 그래서 만일 수·상·행·식에서 벗어남을 그대로 따라 깨닫게 되면 지혜로써 수·상·행·식에서 벗어남을 사실 그대로 보았다.

비구들아, 내가 이 5수음에 대해서 맛들임을 맛들임으로, 재양을 재양으로, 벗어남을 벗어남으로 사실 그대로 알지 못했다면, 나는 하늘과 악마·범·사문·바라문 등 모든 하늘과 사람들 가운데서 벗어나지도, 떠나지도, 나오지도 못하여 길이 뒤바뀜[顛倒]에 머무르고, 또한 스스로 아뇩다라삼먁삼보리(阿耨多羅三藐三菩提)9)를 증득하지도 못하였을 것이다.

비구들아, 나는 이 5수음에 대해서 맛들임을 맛들임으로, 재양을 재양으로, 벗어남을 벗어남으로 사실 그대로 알았기 때문에, 나는 모든 하늘과 악마·범·사문·바라문 등 모든 하늘과 사람들 가운데서 이미 벗어나고, 이미 떠나고, 이미 나왔고, 길이 뒤바뀜에 머무르지도 않고, 또한 스스로 아衲다라삼먁삼보리를 증득할 수도 있었다.”

그때 모든 비구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밟들어 행하였다.

과거무상(過去無常)에 대한 네 가지 설법과
염리(厭離)와 해탈(解脫)
인연(因緣)에 두 가지
미(味)에도 또한 두 가지를 설법하셨다.

[jiwoi 잡아함경 다시 읽기](#)

본 문서는 dhamma.kr에서 수집한 내용입니다.